

| | |
|---------------------|--------|
| 국어 기출 해설지 | 국어 문정호 |
| 2023. 8. 26. 국회직 9급 | |

 **YouTube** **정호는국어왕** 



1. [정답] ③

[풀이] '줄넘기'는 표준발음법 제20항에 따라 '넘'의 'ㄴ'을 유음화하여 'ㄹ'로 발음한다. [줄럼끼]

[참고] <표준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래[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팔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닌[달린] 뚫닌[뚫린]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력]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건네] 횡단로[횡단노] 이월론[이:월논] 입원료[이월뇨] 구근류[구근뉴]

2. [정답] ④

[풀이] '푸르다'는 '푸르러'로 활용하며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러' 불규칙 용언은 어미가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용언이다. 예) 누르(黃)+어 ⇨ 누르러 / 이르(至)+어 ⇨ 이르러 / 푸르(靑)+어 ⇨ 푸르러

나머지는 모두 어간이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용언이다.

[오답] ① '우' 불규칙 용언, ② '스' 불규칙 용언, ③ 'ㄷ' 불규칙 용언, ⑤ 'ㅂ' 불규칙 용언

3. [정답] ①

[오답] ② '게거품'(0), ③ '곰장어'(0), ④ '공깃밥'(0), ⑤ '셋째'(0)

4. [정답] ③

[풀이] 세나다: 물건 따위가 찾는 사람이 많아서 잘 팔리다.

5. [정답] ①

[오답] ② '비전'(0), ③ '플래시'(0), ④ '센티멘탈'(0), ⑤ '프레젠테이션'(0)

6. [정답] ②

[풀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설시조로, 탐관오리가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合理化)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장의 '파리(파리)'는 힘없는 백성 혹은 선비를 나타내고, '두터비(두꺼비)'는 부패한 양반 관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중장의 '白松骨(백송골)'은 두꺼비보다 높은 중앙 관리를 비유한다.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인 '파리'를 착취하는 상황이다. '백송골'은 두꺼비를 훈계하고 행동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②의 종장인 '조심하여라'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오답] ① 이항의 <도산십이곡>이다. 옛 성현의 뜻을 이어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③ 안민영의 시조 <매화사>의 일부이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매화의 의지를 예찬한 내용이다.

④ 황진이 시조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시조이다.

⑤ 정철의 시조이다. 전원 생활의 흥취를 표현한 시조이다.

[참고] 작품 풀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들 뻘했구나.

7. [정답] ②

[풀이] 이 시에는 색채 대비가 드러나지 않았다. '송화가루'에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하지만 색채가 대비되지는 않았다.

[오답] ① '송화가루 / 날리는 / 외딴 봉우리'에서 7·5조의 음수 울과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③ '윤사월(潤四月)'은 4월에 든 윤달을 말한다. '송화가루'는 소나무의 꽃가루이다. 모두 봄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④ 산지기 외딴집의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기대어 외부 세계를 엿듣고 있다.

⑤ 외딴 봉우리가 보이는 원경에서 외딴집의 처녀 모습인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참고] 박목월, <윤사월>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경적(자연의 경치를 글로 나타내는 것), 낭만적, 전통적, 민요적, 향토적
- 주제: 외딴 산중에 사는 눈먼 처녀의 애절한 동경과 그리움
- 특징: 절제된 언어로 윤사월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3음보의 민요적 율격과 7·5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 활용.
- 해설: 이 작품은 봄 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고립되어 지내는 눈먼 처녀의 세상에 대한 애절한 동경과 그리움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려 낸 시이다. 3음보를 기반으로 하는 민요조의 율격을 나타내고 있고,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서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8. [정답] ④

[풀이] (가)를 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라) 배치할 곳이 없다. (라)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고, (가)는 (라)의 뒤에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나)는 (가)에서 언급한 통계의 내용을 이어서 작성한 글이다. (다)는 (나)에서 언급한 '경단녀' 현상의 문제점을 언급한 내용이다. (마)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글의 시작인 (라)만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

9. [정답] ⑤

[풀이] '부사'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이다. 이 글은 '부사'를 변호하는 김애란 작가의 산문(수필)이다. 품사이자 단어인 부사는 문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보통 강조를 하거나 용언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사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글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되고 정갈한 느낌이 사라진다. 이러한 부사를 개성적으로 변호한 글이다.

10. [정답] ②

[풀이]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가린√채'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정은커녕'의 '은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일정은커녕'으로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① '간√지'의 '지'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고, '맞는지'의 '-는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④ '시원섭섭하다'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의 활용형인 '시원섭섭하겠구먼'은 모두 붙여 쓴다. 그리고 '그러'는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 쓴다. '늑장√부리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11. [정답] ③

[풀이] '가시다'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의 뜻인 동사이며 높임말이 아니다. 여기서 '시'는 높임과 관련이 없다.

[오답] ① 객체 높임, ② 주체 높임, ④ 객체 높임, ⑤ 객체 높임

12. [정답] ⑤

[풀이]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외로운 현실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찼다며 이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초생달, 바구지꽃 ~ 도연명, 릴케'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화자와 같은 처지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극복한 존재이다. 화자는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오답] ① 화자는 자신의 슬픈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사랑'과 '슬픔' 등의 정서적 표현을 사용했다.

②

③ 화자는 [가]에서 언급한 운명적 슬픔을 [나]에서 반복하며 심화하고 있다.

④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즈 켄,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모두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13. [정답] ②

[풀이] ㉠은 '어두운 그림자'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낸다. ㉡은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서 미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① ㉠은 현재의 공간이다. 그러나 ㉡은 과거의 공간이 아니다. 이 시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은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를 상상한 구절이기 때문에 과거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에는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서 미각적 이미지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는 관련이 없다. ㉣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아비와 저녁을 먹는 장면을 상상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도 관련이 없다.

④ ㉡의 어머니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이다. ㉡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⑤ 시에서 '바람벽'은 시적 화자의 삶과 내면이 투영된, 영화의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화자의 내면에서 그리움의 대상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난 삶의 이미지, 유랑생활의 쓸쓸함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과 ㉡은 바람벽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과 ㉡은 그림자의 모습이 아니다. ㉠은 가난한 삶에 찌들어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이다. 그리고 ㉡은 화자의 소망이며, 현재의 처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화자의 생각이다.

[참고]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제재: 타향에서의 고되고 쓸쓸한 삶
- 주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자세
- 해설: 이 작품은 백석이 1941년에 발표한 시이다.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운 대상을 떠올린다. 어려운 현실의 삶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 어휘: 때글은: 땀과 때에 오래 찌들은 / 쉬이고: '쉬다'의 사동사. 피로를 풀기 위해 몸을 편안하게 함. / 감주(甘酒): 옛 기름물에 밥알을 식혀 끓인 음식. / 생각하는 내: 생각하는 동안. '내'는 '동안'의 의미. / 앞대: 평안도에서 보아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 말. / 개포: '개'의 평복 방언.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 이즈막하야: 이즈음에 이르러 /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는 일이나 그런 힘. /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14. [정답] ⑤

[풀이] 글의 시작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은 (라)가 가장 앞에 와야 한다. (라) 다음으로 (가)와 (나)는 결정이 되었다. (나)는 하나의 사물이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의 단어로 불린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 뒤에는 (다)와 (마)가

모두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에서 지역이 같더라도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이유를 공동체 의식으로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다)에서 다른 특징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마) 뒤에는 (다)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순서는 (라)→(가)→(나)→(마)→(다)이다.

15. [정답] ⑤

[풀이] '더운 온도 → 빙하들이 녹는다 → 불의 부피 상승 → 수분 증발 → 구름이 수분을 빙하와 만년설에 옮긴다 → → 빙하와 만년설은 커진다' 이 흐름으로 본다면 빈칸에는 '빙하와 만년설이 커지기' 위한 조건이 들어야 한다. ⑤가 가장 적절하다.

16. [정답] ③

[풀이] '날짐승'은 '날아다니는 짐승'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서 '날-'은 '날다'의 뜻인 어근이며 '날짐승'은 합성어이다.

[오답] 다음의 말들은 모두 접두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파생어이다. ① '애-', ② '말-', ④ '맨-', ⑤ '내-'

[참고] 접두사 '날-'

「1」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것, 날김치, 날고기

「2」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바늘, 날바닥, 날봉당

「3」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상가, 날상제, 날송장

「4」 '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강도, 날건달, 날도둑놈

「5」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떤 일에 서투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뜨기, 날짜

「6」 '부질없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날밤, 날소일, 날장구.

17. [정답] ⑤

[풀이] 중세 국어의 8종성법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썼으며 'ㄷ'과 'ㅅ' 받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7종성법에 따라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썼으며 'ㄷ'을 'ㅅ'으로 적었다.

[오답] ① '퍼디 > 퍼지'와 같은 구개음화 현상은 근대 국어 이후에 나타났다.

② 중세 국어 시기의 '·' (아래아)는 발음과 표기가 모두 존재했으나 현재는 발음과 표기가 모두 사라졌다. 일부 제주 방언에서 이와 비슷한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중세 국의 객체 높임법은 경양법이라 하여 '-습, 쥌, 습-'을 사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습니다' 형태의 상대 높임법으로 변화하였다.

④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 이후에 나타났다.

18. [정답] ①

[풀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반대신문식 토론은 '입론, 반대신문, 반론'의 순서로 이어진다. 1문단은 '입론'을 설명하고, 2문단은 '반대신문'을 설명하고, 3문단은 '반론(반박)'을 설명했다.

19. [정답] ④

[풀이] ㄱ에서 형용사인 '끓임없다'와 부사인 '끓임없이'는 각각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ㄴ에서 '연수차'의 '-차(次)'는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예) 연구차, 사업차, 인사차

[오답] ㄱ: '어려운 √ 공부 √ 한다고'로 띄어 써야 한다. '어려운'은 관형어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 '공부하다'는 체언 '공부'와 접미사 '-하다'가 붙은 단어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어려운'은 관형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체언이 와야 한다. 따라서 '어려운 √ 공부'로 띄어 하며 이때 '하다'는 타동사이다. '어려운 √ 공부'는 동사 '하다'의 목적어인 명사구이며, '어려운 √ 공부를 √ 하다'와 같이 조사를 넣어 문장을 만들면 더욱 자연스럽다.

ㄷ: '번 √ 만이다'로 '번'과 '만'을 띄어 써야 한다. 여기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만년 √ 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다섯 √ 번'의 '번'은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20. [정답] ①

[풀이] (가)~(다) 모두 망한 고려 왕조의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가)와 (다)는 슬퍼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작가는 정도전이며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정도전은 조선 왕조 성립에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 또한 작품을 보더라도 이 작품은 고려조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회고의 시조이다. '선인교'와 '자하동'이 그 화려했던 고려 왕업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속을 흐르는 물소리는 고려 왕업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상징한 표현이다. 망국(亡國)에 대한 슬픔을 드러낸 표현 아니라 잊어야 할 지난 역사임을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 ② 모두 망국이 되어 버린 고려 오백 년 왕조를 뜻하는 표현이다.

③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드러내며 망국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모두 시조이며 ⑤는 시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참고] 각 시조 설명

(가)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 五百年(오백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 夕陽(석양)에 지나신 客(객)이 눈물겨워 흐노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궁터)도 가을 풀이 우거져 황폐하다. / 고려 오백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 해 지는 무렵에 이 곳을 지나는 객(나그네)이 눈물겨워 하노라.

- 작가: 원천석
- 연대: 고려 말
- 성격: 회고적, 감상적
- 주제: 고려 왕조 회고. 고려 멸망을 슬퍼함
- 해설: 잡초가 우거진 옛 궁전 터를 바라보며 지은 고려 유신(遺臣)의 회고가(懷古歌)로, 인세(人世)의 무상함을 개탄한 애절한 정한(情恨)이 담겨 있는 시조이다.

(나)

仙人橋(선인교) 나린 물이 紫霞洞(자하동)에 흘러 드리, / 半千年(반천 년) 王業(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 아희야, 故國興亡(고국 흥망)을 무려 무습허리요.

선인교 아래 흘러가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 들어 / 오백 년 화려했던 고려 왕조가 물 소리뿐이로구나. / 아이야, 고려가 흥하고 망한 것을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지은이: 정도전

- 연대: 조선 초
- 성격: 회고적, 애상적
- 주제: 고려 왕업의 무상함. 조선 개국 공신의 고려 왕조 회고
- 해설: 고려조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회고의 시조이다. 선인교, 자하동이 그 흥왕하던 고려 왕업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속을 흐르는 물소리는 고려 왕업의 무상함, 덧없음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다)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흐노라.

오백 년이나 이어 온 고려의 옛 서울(송도, 개성)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들어가니 /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 없으나, 인걸은 간 데 없다. / 아, (슬프다!)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다.

- 지은이: 길재
- 성격: 회고적, 감상적
- 주제: 고려 왕조 회고
- 해설: 고려 유신으로서 망국의 한(恨)을 노래한 회고가로, ‘필마’에는 벼슬하지 않은 외로운 신세, ‘태평연월’에는 고려조의 흥성했던 시절, ‘꿈이런가’에는 무상감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답 해설>